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8월 3일(금) ..(음력 6월 22일).. Пятница 3 августа 2018 г. № 30(11679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대표단(단장 한중구 과장)이 30일(월) 사할린주 정부에서 경제개발부 알렉세이 우스펜스키 장관, 러시아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사할린 대표 등과 만나 6차 유골봉환 한인묘지 확인등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 한국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 행안부 대표단, 제6차 유골봉환 한인묘지 확인사업차 사할린 방문

제6차 유골봉환 한인묘지 확인 등 사할린 답사를 위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대표단(단장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연구과장 한중구)이 지난 7월 28일(토) 사할린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7월 28일(토) 사할린주 한인 노인회 김흥지 회장을 비롯한 지역 한인관계자들과 만나 발굴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8월 2일 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코르사코프·홈스크·네벨스크·돌린스크·마카로브·우글레고르스크 등 9개의 한인묘소들을 찾아 묘소들의 위치 확인과 유족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의 한중구 과장 일행은 7월 30일(월) 사할린주 정부 청사에서 주 경제개발부 알렉세이 우스펜스키 장관, 러시아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사할린 대표, 주 역사문서보관소 세르게이 차로츠킨 관장 등과 만나 유골봉환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였다.

이번 제6차 유골봉환은 유족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일본에 강제동원된 사할린 한인 유골 17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여 한국으로 봉환할 예정이다.

유골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발굴·수습하여 9월 13일에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추도식을 거행한 후 한국으로 봉환하게 된다.

한국 행안부 대표단은 8월 2일 귀국하였다. (본사기자)

사할린에서 농산물 생산 연속적으로 증가

올해 6개월간 사할린주 경제발전의 총결산이 이뤄졌다. 경제발전부 평가에 따르면 지역 제품 생산량은 4942억 루블리(2017년 1월-6월간 시기의 99.5%)에 달했다. 산업 생산량은 4821억 루블리 (전년 같은 시기의 98.7%)에 해당했다.

가스응축액을 포함한 석유생산량은 작년 1월-6월간 시기와 비교해 3.1% 감소한 930만 톤에 달했다.

2018년 1월-6월간 가스 생산량은 2017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7억m³로 11% 증가했다.

5개월간 사할린주의 석탄기업들은 500만 톤의 석탄을 채취했으며 이는 2017년 1월-6월간 시기에 비해 1.5배 더 증가했다.

연방 수산업 소속 사할린-쿠릴 지역관리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어류 및 해산물 생산량은 32만5000톤(2017년 1월-6월간 93.4%)에 달했고 가공량은 24만7700톤(2017년 유사시기의 99.7%)이다.

올해 첫 6개월간 사할린주에서 전기, 증기 및 온수, 액화천연가스, 목재, 생선통조림, 우유와 유제품, 치즈, 발효유 제품, 버터, 육류, 부위별 포장육류, 육가공류, 맥주와 식수의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올해 1월-6월간 농산물 생산량이 전년 지표대비 133.9%가 증가되어 생산액은 24억 루블리에 달했다. 육류는 1.7배, 계란은 1.5배, 우유는 6.8% 증가되었고 돼지 사육 마릿수는 1.4배, 소 사육 마릿수는 6.3%, 가금류는 2.1%, 소 1마리당 평균 우유 생산량은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6월간 평가에 따라 직장인 1명당 월평균 임금은 7만3700 루블리 (2017년 1월-6월간 시기에 비해 7.9%)로 인상되었다. 실질적 임금은 106.4%에 해당한다.

소비시장에서 소비교역량은 3.8%,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2.4% 연속적으로 올랐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기록된 실업률은 0.5%에 해당했는데 이는 2017년 같은 시기에 비해 0.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주 한인회,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관계 단절

2014년 10월 12일 사할린의 대표적인 동포단체인 주한인협회, 주한인노인회와 이산가족협회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해 한국 민간단체들과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동시에 동포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사할린 한인역사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근래에 들어 사할린 동포단체들과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이에 여러 내심 불편한 사정으로 사할린 주한인회·주노인회·주이산가족협회는 양해각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주한인회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 2월 9일에 이미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기종 상임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이 전했다.

트루트네브 부총리 주재 회의, 사할린 목조주택 건설 의제로 논의

러시아연방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대통령 극동연방구 전권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사할린주에 목조주택 건설 전망의 확장을 주제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가 참석했다.

사할린주는 목조주택단지 건설 시범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획은 5개 지방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외곽지역에 33헥타르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다. 건축상 이점은 3-4 개월 정도 단기간 건축, 경제성, 안전성 및 해당 지역의 원자재 가용성이다. 앞으로 사할린주에는 목재강도처리 가공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할린주지사 보고에 따르면 주정부는 목조주택 건설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발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보조금과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사할린주에 목조주택 건축이 6400m², 올해 연초부터는 3700m²가 건축되었다.

사할린 서남지역에서 성어기 마무리

지난 7월 30일 사할린주 서남부 지역 수산업체들이 성어기 연승어잡이 조업을 마쳤다. 성어기 한 달 반 동안 어획량은 97만2410톤에 달했다.

주 수산청 보고에 따르면 송어잡이는 서남부 지역에서 다섯 지방자치체의 업체들이 조업에 나섰다.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수산업체들은 가장 높은 어획량으로 414,22톤, 네벨스크 업체들의 어획량은 10,35톤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타타르 해협은 유빙과 빙산으로 해수저온현상이 일고, 태풍으로 송어의 유입이 흐트러져 열악한 조건 속에 조업의 어려움을 겪었다.

토마리 구역의 수산업체들은 368,63톤을,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구역 수산업체들은 150여 톤을 어획했다고 전해졌다.

<p>새고려신문</p>	<p>2018년 신문주문 계속</p>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	---	--

본지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프레오돌레니에(극복)>재활센터 활동에 대한 보도가 정정 게재된다. 16년 동안 이 청소년재활센터는 루고워에 작은 건물에 위치하다가 2018년 3월 중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심(피즈쿨투르나야 거리 46-아)에 새로 개건된 큰 건물로 센터를 이전해 집집이를 했다.

올해 5월 15일부터 <프레오돌레니에>재활센터 관장으로 채동춘(알비나 블라지미로브나)씨가 부임했다. 하루하루 일정이 너무 바쁜 관장은 7월의 마지막 날 아침 7시 45분에 필자와 만나 차로 이동하는 동안 설명에 나섰다.

"원래 공식적으로 9시부터 일하는데 할 일이 많아서 주로 8시 출근합니다. 9시 이후에는 사무실에 계속 누군가 찾아옵니다. 여기 직원, 또는 아이들의 부모, 협력단체 대표 등입니다."

마지막 12년간 사할린주 사회복지센터의 수석 회계원 겸 부관장으로 일해온 그에게는 현재 임무가 좀 낯설다. 재정과 관리 문제는 잘 알고 있는 분야이나 교육과 재활치료 분야는 아직 시작이기 때문이다.

채 관장에 따르면 이 센터장 임무를 맡아달라는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엘레나 카시야노와 장관의 제안이 뜻밖이었다고 했다. 3일간 고민 끝에 '예'라는 답을 했다. 사실 다른 일자리 알아보

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직위를 선택한 듯하다.

"전에 재활센터를 운영한 타치야나 풀루니나 관장님이 장기간 이 일을 해오셨고 센터 이전과 이전 준비를 하시고 새 직원 모집도 어느 정도 잘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사할린을 떠나셨기 때문에 한 달간 관장직에 올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채 관장이 설명했다.

"현재도 경리관리 부관장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큰 마당에 하늘색의 건물의 센터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갖춘 놀이터가 보기가 좋았다.

재활센터는 1층에서 3층까지 서로 다른 층의 3개 블록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는 먼 지역에서 치료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입원도 시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통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와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재 재활센터에는 158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중 46명은 전문가(의사, 교원)입니다.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장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료복지 재활실이 있죠. 물리치료실, 마사지사실, 운동요법실 등입니다."

장애아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극복>청소년장애인재활센터 관장 채동춘



1970년생.
학력: 노위시비르스크 화학기술전문대학, 태평양대학교 경제학과(회계업) 기혼.
자녀 1남1녀. 손녀 1.
경력: 유즈노사할린스크 고용센터, 우편관리국, 개인업, 주사회복지센터 전문회계

활동교실, 아트교실, 음악실, 놀이치료실, 치료제조실, 감각실 등이 준비돼 있고, 휴게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채 관장은 센터 내부를 자세히 소개했다.

센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소아과 의사, 물리치료사, 외과 - 정형외과 의사, 언어치료사, 정신과 의사, 신경과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고 있다.

<극복>센터는 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주로 정신적 장애인,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 자폐증 환자, 근골격계 장애인 등이다.

"이 아이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얘기, 다양한 가족사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든 모두가 사회적응 코스가 필요하다.

채 관장에 따르면 어린이 한 명의 치료기간은 30일 - 한 달로 보고 있다. 1년에 이와 같은 치료를 3번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사는 아이들이 주로 이 센터를 찾았는데 최근에

는 지방 구역에서 온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하루에 90명 정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55명은 매일 센터를 찾아오고 35명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보살핌이 필요해서 장애아를 혼자 입원시키지 않는다. 꼭 가족보호자나 어머니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센터의 큰 장점이다. 특히 먼 구역들에서 온 환자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럽고도 유리한 방침이다.

2002년에 개설된 이 센터의 전문가 대다수는 그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 재활치료와 교실활동,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매일 창작을 통한 치료활동(미술치료, 음악치

료, 놀이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협력기관과 업체들도 많다. 아이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도 잘 찾아가고 공동활동도 잘 따르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에 <제플리츠닉> 스토크(온실농장)에 갔었는데 애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채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떤 시설과 기술을 쓰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라고 알비나 블라지미로브나가 협력업체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채동춘 관장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9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장실을 여러 직원이 여러 문제로 찾았다. 쿠릴에서 온 환자 수속절차 문제, 장비관련 문제 등이었다.

이날 관장과 함께 식당 점검도 했다. 이후 임원회의가 있어서 필자는 더이상 시간을 뺏지 않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프레오돌레니에>재활센터의 사업은 완벽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센터가 제대로 움직이고 운영되도록 채 관장이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았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전자 정보화된 종합교육 운영 시작

사할린 주민들에게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주 민방위본부는 주민의 비상상황 대처와 화재 및 수상안전 부분에 있어 전자정보화된 종합교육방식을 제작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인터넷상 민방위종합교육 사이트는 최신 대중적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영상, 화보자료, 만화동영상으로 교육준비를 완성했다. 학습종료에 따라 습득한 지식을 평가해 볼 수도 있다고 러시아 비상대책본부 사할린지부 홍보실이 전했다.

- 성인
- 중고등학생
- 학령 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이 사이트에 있는 사할린주 디지털 지도에서는 세부적으로 러시아 비상대책본부 지역 위치별 지점, 소방대, 주민 비상상황대처 및 민방위교육방법센터, 비상 시 주민보호와 민방위교육 상담소의 위치와 자연적, 산업적 재해에 노출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 работу электрон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В целях массовой подготовк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бласти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защиты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водных объектах создан и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е электрон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ЭИОК).

С помощью совреме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ЭИОК осуществляет подготовку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идеоматериалов, материалов с анимацией, мультфильмов.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зучения возможна оценка полученных знани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ГУ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дготовка проводится для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взрослое население;
- дети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 дети дошкольного и младшего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На сайте размещен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которой можно найти место расположения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МЧС России,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е и защите населения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учебно-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х пунктов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е и защите населения от ЧС, а также подверженность территории техногенным и природным рискам.

Хомска의 쌍둥이들 거리행진 참가에 초대

8월 셋째 주 토요일은 Хом스크 시민들이 사랑하는 도시 설립일로 기념한다. 올해는 8월18일이 도시기념일이다.

행사조직위원회는 도시 설립일 축하의 전통을 유지하며 더욱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7년에는 처음으로 쌍둥이들의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구역 중앙센터 147주년을 즈음하여 특이하고도 문화복합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쌍둥이들이 출현하는 거리행진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주최 측의 아이디어로 쌍둥이, 세 쌍둥이로 구성된 행렬 조성은 주목을 끌었다. 다시 시도해볼까 한다. 이번 참가자의 연령은 그리 중요치 않다. 여권에 현 도시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Хом스크 구역의 주민들을 초대한다. 여러분, 모두의 축제에 오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라고 예카제리나 노소와 행사 조직위원회 쌍둥이 대표가 초대했다.

거리행진의 참가신청은 8월 10일까지 8(42433) 2-10-72전화로 접수 및 추가정보 문의.

거리 행진은 8월 18일 미라광장에서 열린다. 참가자 집합시간은 17시 30분이다.

Холмских двойняшек зовут на парад

В третью субботу августа холмчане празднуют день рождения любимого города.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это событие выпадает на 18 августа.

Оргкомитет старается сохранить и приумножить традиц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города. К примеру, в 2017-м впервые был проведен парад двойняшек.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л изюминкой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 147-летию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 Мы видели, что появление двойняшек на параде вызвало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и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людей. Значит, с идеей сформировать отдельную колонну из двойняшек и тройняшек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пали в точку. Почему бы не повторить эксперимент?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роли не играет. Обязательно иметь в паспорте только городскую прописку. Приглашаем жителей сел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ходите, друзья, на наш общий праздник. Мы вас ждем, — приглашает двойняше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Екатерина Носкова.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параде двойняшек принимают-

ся до 10 августа по телефону: 8(42433) 2-10-72. Здесь ж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арад состоится 18 августа на площади Мира. Сбор участников в 17:30.

<필라 켄> 사할린 앙상블, '다민족 러시아. 매혹적인 세계' 축제에 참가

오하 구역 네크라소브 마을의 <필라 켄> (커다란 태양) 님호 민속앙상블이 '다민족 러시아. 매혹적인 세계' 전 러시아 유랑축제의 우랄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행사는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예카테린부르크, 튜멘, 움스크, 이심, 톰스크에서 펼쳐진다.

프로그램에서는 러시아 북방소수민족들- 이텔메노브족, 에벤족, 축치족, 에스키모족, 사미족, 네네츠족, 님호족-의 독특한 문화들을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주요같은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다민족의 민속춤, 회메이, 민속음악, 민속경연극 등 다양한 장르가 전통적 형식에서 현대적 양식까지 아우르며 다민족의 다채로움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다민족의 러시아. 매혹적인 세계들' 축제는 국내 유일한 유랑축제이다. 다민족 문화축제 발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무르만스크에서 추코트카까지, 타이미르에서 고르나야 쇼리야까지 지역에 민속예술창작단체가 조성된 것이다. 축제의 참가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행사장에서 만나든지 서로 마주하여 곳곳에서 신속하고, 조화롭게 품격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2017년 사할린에서 열린 축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었다.

<필라켄>은 얼마 안 되는 사할린주 앙상블 중 하나로서 님호족의 전통문화를 이끌고, 극장공연의 다양한 모습들을 상연목록에 보존하고 있다. 앙상블 창단 이래 대단히 많은 민속학적인 자료가 많이 쌓여 있다. 이 앙상블의 주요 목적과 과제는 님호족의 생활양상, 역사, 문화를 알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남성용 게임' 무대오락공연은 축제 주최 측의 주목을 받아 '매혹적인 세계' 축제에 참가 제의를 받았다.

주 민속예술창작센터는 '사할린주 북방소수민족 발전 협력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협찬하는 '사할린에너지 투자 유한책임회사'의 지원을 받아 주최가 되어 축제에 참가를 준비하도록 했다고 주 민속예술창작센터 측이 밝혔다.

(8면에 계속)

사할린주민, 연금 개혁 반대

지난 2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콤포소몰레츠>영화관 앞 광장에서 러시아에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을 반대하며 전국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이날 650여 명이 서명했다고 알려졌다. (취재: 이예식 기자)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 D-30, 9월2일 마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17차 세계한상대회의 사전등록이 9월 2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대회 등록 사이트 (www.hansang.net 또는 hansang.korean.net)에서 가능하고, 사전 등록기간에 신청하는 참가자에게는 30%의 참가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올해 대회는 전 세계 약 50개국, 4천여 명의 내외동포 경제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회는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한상포럼,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 한상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꾸미는 '한상의 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최근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한상의 역할을 모색하고 한상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제조·물류의 중심 도시인 인천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활동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인 뷰티, 로봇, 첨단자동차, 바이오 산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최지역에 대한 한상들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상 및 동반가족 대상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는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한민족 최대 경제교류의 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한상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욱(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호의 계속) 4. 혈통주의와 과거국적주의란?

이 글을 쓰기 전인 7월 23일에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영주귀국자들과 그들의 2-4세대의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여 강연을 하러 가서 그 분들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떻게 그분들을 이제야 대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궁금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모임을 주선한 분은 인하대학교 소속의 박봉수 박사님이다. 현재는 박사님 스스로 '인천 고려인문화원/디아스포라연구소.(사)너머'의 지원을 차려 고려인 후세대의 한국어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이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이제 그 시작을 한 단계이다. 또한 이 글을 쓰려고 하다 메일을 확인하니 사할린 한인으로 건축가이면서 시인이신 이채인 님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도 보내주시기도 하였다. 그는 2015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에 '모국편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조국이 국민을 팔았다고 한탄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누구인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차마 부끄럽다고 한다.

이와 같이 조국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조국이 되었을까? 그들이 당당하게 조국을 말할 그날을 기대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번 호의 주제는 '혈통주의와 과거국적주의'이다. 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는 혈통주의를, 재외동포에게는 과거국적주의를 적용시키려고 하였을까?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이 글 제7 주제의 재외동포법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혈통주의란 자식에게 그 부모의 피가 흐르면 그 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과거국적주의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를 재외동포로 본다는 제도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는 재외동포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광복 이후에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인정한 사실이 있는가? 그러한 인정을 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는 러시아, 중국 등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국가들과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혹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국적을 찾아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해간 것이다. 그 결과는 여전히 현재까지도 재외동포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

(1) 국적과 혈통주의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1997. 12. 13. 법률 5431호로 전문 개정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모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본조제목개정 2008.3.14]

*기아(棄兒): 버려진 아이

신국적법(1997. 12. 13. 법률 5431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출생한 당시에 그 부모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이를 흔히 부모양계혈통주의라고 한다(구 국적법에서는 그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였다. 이는 부모양계로 개정되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아래에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부모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식들은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이 글 제1호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갔던 조선인들은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적 사건 등으로 러시아나 북한, 일본 국적 등으로 변경된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본인들이 원한다면 국적회복을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국적, 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들의 경우에는 1-2세는 대부분 국적회복을 하려고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3-4세들이 지금에서야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인천 영주귀국자들에게 그들의 3-4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느냐고 여쭙어 보았다.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재

의 본인들의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나라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게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 현재 영주귀국자 분들의 희망사항은 그들의 3-4세에게도 복수국적을 인정하여 그들이 받는 영주귀국자와 동일한 복지-예를 들면 주택, 생활비, 의료비 등-를 그들이 65세 이상 되었을 경우에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는 1-2세 정도에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독립유공자처럼-, 3-4에게까지도 그와 동일한 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본인이 꼭 필요로 하는 복수국적이라면 우수인재, 독립유공자의 후손일 경우, 한국 정부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영주귀국자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복수국적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어 볼 것이다.

(2) 재외동포와 과거국적주의

(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칭함) 제2조 제2호,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전문개정 2008.3.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73호 일부개정 2017. 10.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전문개정 2008.3.14]

재외동포법은 제정된 역사도 길지 않다. 이 법은 1999년 9월 2일 공포되고, 동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 6015호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간 동포들에게는 이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동법 제2조 제2호와 동 시행령 제3조가 헌법불합치 판정(2001. 11. 29. 99헌마494)을 받아, 200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내용이였다. 그 결과 2004년 3월 5일,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개정된다(이하 이들을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혈통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나(재외동포측),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후라는 시점의 불합치(법무부측)나에 대한 해석이 재외동포와 법무부 간에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처음 이 법이 제정되던 그 당시 배경으로는 1990년대 국내외 환경변화로써, 냉전체제가 붕괴되어 구공산권체제와의 교류가 가능하여졌고, 그 결과 대량 유입된 중국동포들 문제, 그리고 1990년 세계화의 물결에 따른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재미동포들의 재산권 행사와 출입국 편의 등을 현실화하고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 목표의 하나로 채택하면서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게 된다. 즉 1990년대 탈냉전, 세계화, 한국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법은 처음부터 재미/재일동포들의 요청에 의한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므로, 재중/재러시아 등 동포들은 제외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헌법 소송의 결과 이들이 동법에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재외동포들에게 혈통주의를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과거국적주의를 적용시킨 것이다. 이는 혈통주의를 적용시킬 경우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의 차별 문제가 있다거나, 재외동포들이 주재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과거국적주의 적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겠다.

(다음호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опросы по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ю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суд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30 июл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А.Успенского с начальником отдела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ном Хан Джунг Гу.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проекта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но завез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с 2013 года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и проводятся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ноябрь 2017 года всего перезахоронены останки 55 челове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ализуются 6-й этап проекта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и 3-й этап проекта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2018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еще 17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3 сентября т.г.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прощания.

Остаются не найденными ряд могил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этому работа по их поиску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дальнейшем плодотво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саков привлекает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14 городов из 5 стран, среди которых Россия, Корея, Китай, Япония и Монголия, встретилис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осточ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и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ключевым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рошел 28 июля в городе Пхох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легация Корсакова представляла на форуме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в качестве территории с особым режимом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С целью привлечени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резидентов к взаимовыг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легаци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Яна Кирьянова, на встрече с мэром Пхохана Ли Ганг Доком рассказала о важных преимуществах режима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Потенциальным резиденто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может стать любо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ли 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готовые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новый бизнес от 80 тыс. долларов США и боле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еестр резиденто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включено 18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планирующих реализацию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 сумму более 10 млрд рублей.

В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ах были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е проекты действующих резидентов.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также заявила о том, что открыта к диалогу, и намерен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сесторонне изуч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о н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По поручению мэра Пхохана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резидентов и инвесторов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тенды. Кроме того,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прос посещения Корсак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бизнеса для более глубокого изуч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ей совмест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ей с целью обсуждения перспекти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стоится в Корсакове в сентябре нынешнего года,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лодёжный форум «OKFriends CIS Reunion 2018»

В Москве завершился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лодёжный форум «OKFriends CIS Reunion 2018» и мы хотим поделиться его результатами.

Форум проходил с 18 по 21 июля 2018г., в его программе было две секции: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ртнёрство молодёж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как один из пример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фер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культурная «Народная музыка как один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ы и показатель многообраз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продвижение имидж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секции в ходе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представляли и защищали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проекты, среди которых,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был выбран один: «OKFriends CIS Reunion 2019». Критериями выбора проекта выступали его массово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влечения,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молодежи из разны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чтобы проект имел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и др. Однак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едшим форумом, для следующег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сширить формат и, помимо обществен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секции, добавить спортивную – Тхэквондо ВТ. Удивительно, с каким энтузиазмом со стороны абсолютно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орабатывались детали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его подробная программа, смета, расписание. Невооруженным глазом было видно насколько каждый из собравшихся хотел бы принят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в его осуществлении.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том числе о городе проведения данного форума, мы сообщим немного позднее.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бы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что в ходе работы общественной секции такж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молодё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и. Создание подобной ассоциации стало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грядущи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С ее помощью мы сможем избежать многих трудностей в их реализации, включая юридические.

Кроме рабочих моментов ребята вспомнили программу «OKFriends Homescoming Youth 2017», презентацию которой подготовила участница программы OKFriends 2017 – Ольга Пак. Также была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глубже узнать о корейских обычаях и традициях. Жанна Сон,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читала лекцию на тему: «Культура и традиционализм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Результатом работы культурной секции могли любо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но 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нашей столицы в парке Красная Пресня на отчетном концерте. Коллективы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показали, как за столь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искусство и любовь к общему делу может сплотить людей.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секции не работали отдельно в течении всего форума и у них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оближе на совместной лекции об истории возникновения такого удивительного вида искусства как самульнори. Лектором выступ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ллектива самульнори «Араса» – Ео Су

Мин. После лекции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ой секции получили шанс пройти мастер-класс игры на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ах, и кто знает, може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жгутся новые звезды!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ообщить, что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е осталось незамеченным нашим старшим поколением. За день до отчетного концерта в сте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Дом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мени В.Д.Поленова, ставший символом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где, помимо активистов МДКМ и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были: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н Чонг Чи Вон и сотрудница посольства Ян Дживон,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эри Вахтанговна Русан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исей Ирбемович Ким, эксперт по культуре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Центра культуры Евгения Олеговна Такаракова,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Жанна Григорьевна Сон,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Эльза Леонидовна Бажора, активист ООК Виктор Дмитриевич Цой и др.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Павел Пай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и первой предоставил слово М.В.Русановой. «Я слежу за развитие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Москвы и мне приятно наблюдать рост в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вы выбрали верный вектор направления. Успехов вам и терпения!» – сказала Мэри Вахтанговна. Далее выступил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н Чонг Чи Вон. Он поблагодарил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на резолюцию данного форума. «Я вижу потенциал в молодеж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Здесь помимо московской молодежи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енбург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Астрахани и Саратова, и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казало масштаб молодеж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Я надеюсь, в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будет поднимать рост именно на местах, где вы живете, а не только в Москве» – заявил г-н Чонг Чи Во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Моисей Ким сказал, что председатель ООК Цо В.И. непременно хотел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на этой встрече, но неотложные дела не позволили это сделать и просил передать слова одобре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ООК МДКМ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их задач. Далее Моисей Ким приветствовал молодёжное сообщество корейцев следующими словами: «Я приятно удивлен активности МДКМ, ребята набирают невероятные обороты, только недавно отметили годовщину организации, и уже суме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мероприя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асштаба. Молодежь показывает хорошую работу и



вселяет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на будущее».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ись и высказали свое мнение по поводу форум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сле чего, Евген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Цо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МДКМ вкратце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и дальнейших планах молодежи. Завершил и подвел итоги форума председатель МДКМ Павел Пай. «Прежде чем подвести итоги форума, мне бы хотелось отметить такой позитивный факт, как рост интереса молодежи к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я, пока молодой, когда полон энергии и здоровья, буду делать все от меня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очувствовали свою силу, ценность и значимость в обществе. И я рад, что это осознание пришло сейчас, а не когда мне было бы 40-50 лет, и не придется сожалеть о том, что я не реализовал важный этап в своей жизни вовремя. Я это всё говорю не к тому, чтобы вы говорили мне, какой я хороший, нет. Ко мне все относится по разному хорошо ли, плохо ли, это личное мнение людей, но я уверен они все скажут одно, что я всегда отвечаю за свои слова и добиваюсь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Этой зимой, на одном из форумов, я сказал, что соберу ребят из регионов в Москве и мы продолжим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И данным форумом я считаю, что я ответил за свои слова. Но надо сказать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моей команде, моей второй семье, которые не ели, не спали, отложили все на второй план ради этого форума. Если бы не они, то не было бы этого всего» – заявил Павел Пай.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итогов форума, мы получили столь ценные советы, пожелания и теплые напутствия, которые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постараемся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В заключение сделали совместное фото,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все гости 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корейское блюдо кимпаб.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состоялся отчетный концерт на Красногвардейских Прудах в парке Красная Пресня. Участники коллективов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показ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на игре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Также там выступил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Ханьль Се. Во время концерта была разыграна викторина, где гости получили небольшие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После концерта все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лись на совместном ужине и получили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одарки и сертификаты об участии.

(Команда МДКМ)
(публикуется в сокращенном вариант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рибыли в РК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Азиатским играм

Группа из 34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портив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во главе с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КНДР Хан Хо Чхолом прибыла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РК. Вместе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цы будут готовиться к участию в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с 18 августа по 2 сентября в Индонезии. В состав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18 каноистов, восемь гребцов, четыре баскетболистки и четверо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Из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северокорейцы отправились в город Чхончжу, в 150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еула. Совмес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Юга и Севера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единой межкорейской команды для участия в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достигнут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спортсмены Юга и Севера выступили единой командой в женском хоккее.

КНДР передала США останки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27 ию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еред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ША останки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гибших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Они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из вонсанского аэропорта Кальма на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вшем туда транспортном самолёте C-17 на американскую авиабазу Осанн,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Пхёнчхэк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Белом доме отметили, что данное событие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первым шагом в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роцесса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На базе будет проведён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ДНК, а 1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правки останков на родину. Они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на Гавайи, где эксперты проведу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анализы и найду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огибших.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ведёт свой летний отпуск на военном объект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ведёт свой пятидневный летний отпуск, который начинается 30 июля, на одном из военных объек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анное мест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отпуска выбра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 случае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с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о легче связа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президентом в отпуске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глава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м Чжон Сок. В отсутствие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и главы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язанности обоих будет исполнять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Чон Ый Ён.

Глава МИД РК встретила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Госдумы России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Кан Гён Ха встретил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Сеул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оссии Леонидом Слуцки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освящённой вопросам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гла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Д отметила личный вклад Леонида Слуцкого в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Москвой. Показателем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тал состоявшийся в июне успешный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Россию, подчеркнула Кан Гён Х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Леонид Слуцкий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жители России были «впечатлены» выступлением Мун Чжэ Ина в российском парламенте.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также обменялись взглядами о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направлениях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К сократят срок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едвыборными обещаниям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а, в РК поэтапно будет сокращён срок обязательной военной службы. Сокраще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планом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оборонной системы,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27 июля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В нём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срок службы в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ах, ВМС и морской пехоте будет сокращён на три месяца, в ВВС - на два месяца. Реализация план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три года. Срок службы будет сокращаться на сутки каждые две недели. Первыми новые условия затронут призывников, чья служба начала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жду тем,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армии повысится благодаря внедрению новейших вооружений и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обучения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Кроме того, решено повысить оклад срочников. Так, зарплата сержанта к 2022 году увеличится с нынешних 400 до 620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В тот же период количество генералов сократится с нынешних 436 до 360. Сокращение коснётся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RKI)

С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осетит Пхеньян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сетит Пхеньян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в сентябре в Нью-Йорке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трехстороння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США,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Чосон Ильбо"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траны.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заявили, что им ничего не известно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Напомним, что 27 апреля в Пханмунчжоме состоялся очередной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ибыл в южнокорейскую часть этого приграничного местечка, где его приня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была принята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Кроме того, Ким пригласил Муна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нял это приглашение. В качестве ориентировочного времени для ответной поездки была названа осень этого года.

По информации издания "Чосон Ильб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визит Мун Чжэ Ина в Пхеньян пройдет несколько раньше - уже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По словам источника газет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на днях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был обсужден процесс подготовки ответного визита. "Весьма вероятно, что президент

Мун поедет в Пхеньян уже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 цитирует "Чосон Ильбо" слова чиновника, который высказался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ы была назва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дтолкнуть процесс сближения Пхеньяна и Вашингтона, а также ускорить процесс отказа КНДР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намерен продолжить выполнять роль посредника в контактах между лидерам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осон Ильбо" также сообщила, что помимо поездки Муна в Пхеньян обсуждался также и вопрос организации трех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РК, КНДР и США. По мнению Сеула, она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уже в сентябре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в Нью-Йорк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дготовки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аммит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для визита Муна в Пхеньян в августе.

Впрочем,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ула отказались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эти сообщения. На вопрос журналистов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заявили, что им нечего сказать пресс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Одновременно японские СМИ сообщили, что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скорее всего не поедет в Нью-Йорк в сентябре.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в сентябре приедет

в Россию для участия в ежегодном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ЭФ). Ранее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уже передал Ким Чен Ыну предложение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инято. Хотя точные сроки приезда Кима названы не были, но в Кремле высказал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встреча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в ходе ВЭФ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тметим, что свое участие в ВЭФ в этом году уже подтвердили лидеры Китая и Японии. Приглаш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и президенту РК Мун Чжэ Ину. "Если Ким Чен Ын решит тоже приехат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то я думаю, что тогда на ВЭФ точно прибудет Мун Чжэ Ин. Кроме того, скорее всего можно ожидать и участие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который вряд ли проигнорирует подобную широкую встречу. Если все это реализуется, то ВЭФ приобретет совсем иное звучание и значени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огда соберутся главы стран, которые до этого вели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ядерному разоружению КНДР. Это позволит реаним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и добиться существенного прогресса по части развития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диалога", - сказал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источник, хорошо знакомый с ситуацией на 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о он при это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то всего лишь его предположения.

(Олег Кириянов. РГ)

Военные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достигл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 вопрос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енные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достигл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по ряду вопросов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совместные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находящиеся в пределах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сокращение в пробном режиме количества постов охраны и демилитаризация Объединённой з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корей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военным вопросам на уровне генералов состоялись во вторник в при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Как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гла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генерал-майор Ким До Гюн,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должить обсуждение конкретных сроков, методов и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посредством уведомлений друг друга и контактов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Переговоры продолжались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во вторник, но по их итогам никаких письм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ринято не было. Это были вторые за послед-

нее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ы на уровне генералов Юга и Севера. Предыдущие состоялись 14 июня. Тогда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ить военные линии связи на восточном и западном участках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KBS WORLD)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ктриса удостоена награды кинофестиваля за лучшую роль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ктриса Ким Да Ми удостоена награды за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на 22-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в канадском городе Монреале.

Жюри отметило ее главную роль в фильме "Ведьма", сообщили в прокатной компании Warner Bros. Korea.

Фестиваль этого года открылся 13 июля и продлился по 2 авгус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фестивале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в Монреале награды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был удостое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ер-ветеран Сон Кан Хо, снявшийся в фильме "Таксист".

Фильм "Ведьм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тудентке, обладающей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ми силами и окружающих ее тайнах. Это стало первой главной ролью Ким в кино.

Фильм, премьера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ась 27 июня, уже посмотрели свыше 3 миллионов зрителей. (ИА РУСКО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ост выпуск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шест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оставил 494,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99,5 процен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январю-июню 2017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ложился в размере 482,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98,7 процентов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ефтяники Сахалина добыл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9,3 миллиона тонн, что ниже января-июня 2017 года на 3,1 процента.

Добыча газа в январе-июне 2018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17 год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11 процентов и составила 16,7 миллиарда кубометров.

За пять месяцев уголь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быто 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угля, что в полтора раза выше января-июня 2017 года.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оставил 325 тысяч тонн, или 93,4 процента к январю-июню 2017, переработано 247,7 тысяч тонн, или 99,7 процентов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2017 года.

За первые шест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ара и горячей воды,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лесоматериалов продольно распиленных, пресервов рыбных, молока и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ов, кисло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масла сливочного, мяса, мясных субпродуктов 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пива и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 январь-июнь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 2,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33,9 процента к прошлогодним показателям.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выросло в 1,7 раза, яиц в 1,5 раза, молока на 6,8 процентов. Поголовье свиней увеличилось в 1,4 раз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 на 6,3 процента, птицы – на 2,1 процента.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1 корову вырос на 9,4 процента.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о оценке, в январе-июне 2018 года составила 73,7 тыс. рублей 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январем-июнем 2017 год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7,9%. Ре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сложилась на уровне 106,4%.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сохраняется рост объемов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на 3,8 процента) и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селению (на 2,4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на конец июня 2018 года сложился на уровне 0,5%, что ниже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ы 2017 года на 0,2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ступило в центр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в Синегорске

Закуплены прикроватные мониторы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за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пациентов, кислородные концентраторы, приборы для кварцевания палат.

Вскоре оснащение центра пополнят и другие аппар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пецоборудования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выделено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поставок уже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но некоторые новинки ещё не распакованы. Прикроватные мониторы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за пациентом установят в палате интенсив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её планируют оборудова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десь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самые тяжелые пациенты. Аппараты обеспечивают постоянный контроль за основны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частотой дыхания, пульсом, артериальным давлением.

У нас во всех палатах установлены камеры наблюдения, которые выведены на сестринский пост.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отрудникам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разные ситуаци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врач Синегорской участковой больницы Михаил Сушко.

Отделение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находится в двух корпусах, в обоих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оведён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Палаты рассчитаны на разное число коек, максимальное – 4.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учреждении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30 пациентов. Это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йчас лечение проходят люди из Корсакова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В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нуждаются тяжело больные пациенты с трудно излечим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подразделении работают три врача. Для каждого пациента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с подбором обезболивающих средств и лечебного питания.

К нам привозят после инсультов, с онкологией, друг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Были, казалось бы, безнадежные ситуации. Но нам удавалось поставить на ноги пациентов, и они вернулись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 сообщ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дучреждения.

Условия созданы здесь хорошие.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пациенты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омфортно. С каждым работаем индивидуально, стараемся не только медицинские назначения выполнять, но и подбодрить, поговорить. У некоторых бабушек нет родных, они очень отзывчивы, «оттаивают» на любое доброе слово, – поделилась младшая медицинская сестра Елена Сарнюк.

Закупки мед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отделения продолжа-

ют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ут приобретены аппараты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ёгких, автоматические дефибрилляторы, ещё несколько кислородных концентраторов. На эти цел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выделено по 1,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роме этого в больнице появится спецавтомобиль для бригады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ая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паллиативную помощь на дому.

Охватим близлежащ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ыезжая к пациентам, за которыми родственники ухаживают дома. Будем заниматься профилактикой пролежней, оказывать кислородную поддержку, делать инъекции. В составе бригады должен быть психолог. Ведь мы нацелены не только на работу с пациентами, но с их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м тоже нужна определ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 подчеркнул Михаил Сушко.

На Сахалине паллиативное отделение также работает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Условия для оказания профильной помощи созданы в Охе, Поронайске и Томари. Доступность современной, качеств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это одна из задач, которую обознач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к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1 марта 2018 года.

Воспитан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реодоление» выбирают профессии

На базе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чреждений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остоя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Шанс есть у каждого».

Сотрудники островного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рассказали детям о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фессиях в регионе. 30 ребят, вовлеченных в интерактивные иг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знакомство с миром труда, открывали для себя различ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Мы всегда говорим родителям и педагогам о том, что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к нам, мы поможем и выберем оптимальный вид занятости, – говорит Юлия Анисимова, специалист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ршие школьники прошли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 выявле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наклонностей.

Я хочу стать фотографом,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амая лучшая профессия, – рассказала о своей мечте Эльвира Игамбердыева. –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людей, природу, животных и потом всем показывать, радовать красивыми снимкам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Преодоление» открылись гончарная и столярная мастерские, в планах – занятия робототехникой, на которых ребята будут знакомить с основами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это поможет расширить кругозор и приобрести навыки, нужные для взросл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жизни.

В группе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ребята от 3 до 18 лет.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и наблюдение ведут ортопед, невролог, физиотерапевт, педиатр, логопеды, психологи и социальные педагоги. В центр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етей – в здании широкие проходы и дверные проемы, позволяющие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маломобильным воспитанникам. Комнаты сна и отдыха оборудованы ортопедической мебелью.

Напомним, новы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откры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весной текущего года. Просторное здание занимает площадь 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нём ежедневно проходят реабилитацию до 150 ребят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Здесь оборудованы спортивный и музыкальный залы, игровые комнаты. В центре есть отделение медико-социаль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широкий спектр услуг по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е. Для жителей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региона открыт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стационар.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планомерная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комплекс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Это одно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которое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Такие центры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упнее и ближе к людям и напр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на медицинскую, но и социальн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началос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17 объектов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Работы стартуют сразу в несколь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Благодаря им новую жизнь получат 13 дворов и 4 площадки для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Во дворе дома №40 по улице Садовой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уже сейчас демонтируют старые бордюры и разрушенное бетонное покрытие, готовятся к укладке нового асфальта. Затем приступят к облагораживанию клумб, переносу мусорных контейнеров и приведению в порядок парковки.

Выбор площадок для ремонта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прошел при участи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выразили свое мнение на собраниях по инициативному бюджетированию.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Ильинском сейчас полным ходом иде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рядом с амбулаторией.

Работы стартовали 16 июля, и уже сделано немало.

Рабочие произвели выемку грунта, начали устанавливать бордюрный камень, –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мэра Томар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талья Лялькина. – Позднее здесь уложат асфальт и создадут входную группу.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жителей нам предстоит установить 37 уличных светильников и обустроить 57 парковочных мест.

Томаринцы неоднократно обсужда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тарого стадиона возле школы в райцентре. Он был построен энтузиастами в восьмидесятые годы 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отвечает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В диалоге с жителями,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получила понимание, что этот объект важен для города, и необходимо выделить деньги на него. Вскор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ится искусственное покрытие и трибуны на 300 человек.

Это поле нам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о, поскольку и зимой, и летом у нас занимается много детей. Спор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нам нужна всегда.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оконч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поделилась Ирина Ножкина, директор Томарин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этом году решили уделить проектам в рамках «Молодежного бюджет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выбраны 4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и популярных. В частности, люди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место для занятия воркаутом в школе города Томари, где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установят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трюков. Площадка для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явится на пришко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При школе в Ильинском будут трассы для обучения катанию на роликах, скейтбордах и велосипедах.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обустройство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и в Пензенском, – добавила Наталья Лялькин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влечения граждан в процес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родных городов и поселков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данном вопросе добилась хоро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К программе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регио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в 2017 году и за это время во многи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а благоустроено десятки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увеличилось число детских врачей уз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появились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нефролог, офтальмолог. Кроме того, в медучреждении теперь работает эпидемиолог, своего специалиста в поликлинике не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Проблему с дефицитом кадров решали комплексно –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и путем орган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нов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ь поликлиники врачами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80 процентов.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м переподготовке врачей по специализациям, в которых остро нуждаемся. Так, у нас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е было нефролога. Отправили на подготовку доктора, проработавшего у нас 5 лет участковым педиатром. Долго не могли найти и эпидемиолога, специалист принимал только в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е. В итоге отправили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учение невролога, – рассказывает главный врач поликлиники Татьяна Колба.

Молодые врачи, пришедшие по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активно включаются в работу. Так, детский и подростковый гинеколог Наталья Пузынина ведёт школу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в медучреждении она работает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Университет закончил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зрослая гинекология». Меня направили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отому что при работе с детьми и подростками есть свои нюансы, – сообщила Пузынина.

Молодой врач-невролог Мария Каленик к медицинской практике подошла с творчеством. Она сама придумала дизайн стен в своем кабинете – нарисовала на них героев известных сказок. На это у нее ушло 3 дня.

Когда дети заходят в кабинет врача, они обычно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напряженно, нередко доходит до слез. 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увидят знакомых персонажей, настроение меняетс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още с ребятами работать, – рассказывает Каленик.

По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поликлинику пришли работать 34 врача, пополняются и ряды средн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Привлечение но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одолжается. К пример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4-5 курсов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деляется внимание переподготовке докторов. В сентябре на обучение по сурдологии отправится один из отоларингологов поликлиники.

Всего за время действия программы с 2013 года для работы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ехали работать 600 врачей,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100 докторов. Размер «подъемных» для врачей составляет от 725 тысяч рублей до 1,3 миллиона, для фельдшеров – от 400 до 600 тысяч рублей, а для медицинских сестер от 270 до 405 тысяч. Величина выплат зависит от района, в который прибывает специалис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자원개발 실패 되풀이하지 않길

지난달 초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 다녀왔다. 사할린은 더 이상 '동토의 땅'이 아니었다. 최근 러시아의 '천연가스 보고'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다.



특히 북극항로와 연결된 북극해 유전과 함께 러시아 극동개발 핵심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NG)'도 이곳 사할린과 연결된다. 사할린은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고 있고(러시아는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2위다) 추가 탐사도 진행 중이다. 사할린의 자원개발 시장은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장악하고 있다.

사할린 석유·가스전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였다.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각축전에 당시 한국은 역량이 부족했다. 특히 20세기 초(1905~1945년) 사할린을 점령했던 일본(기업)은 1970년대부터

이곳의 에너지 개발에 눈독을 들여왔다. 도쿄전력 등 일본 발전기업들은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분에 투자했다. 현재 일본은 열도에서 가장 가까운 사할린을 통해 연 400만 t 정도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우리도 사할린에서 LNG를 수입(연 150만 t)해 쓰고 있지만, 아쉽게도 사할린에선 우리의 석유·가스전 지분은 전혀 없다. 2000년대 초반 사할린 유전개발 붐이 일면서 우리도 여러 개 광구 중 하나의 개발권 지분 참여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재계가 뒤엎힌 '오일게이트(2005년)'가 터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결국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자원 요충지임에도 우리는 가스를 수입해 쓰는 수요자에 머물러 있다.

지난 26일 우리는 자원개발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불편한 진실'을 확인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은 자체 조사를 통해 '숨겨진 부실'을 털어냈다. 수익률을 부풀리고 경제성·전략적 가치 등 제대로

된 투자검토가 없었다. 워선의 지시에 따라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했다. 손실이 커지자 이를 희석하려 투자를 더 늘린 일도 있었다.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만연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는 방관했고, 권력(청와대와 주무부처 등)이 개입해 프로세스를 왜곡했다. 이런 '합작'으로 공기업 3사의 자원개발 손실액은 15조9000억원(2017년 말 기준)에 달한다. 부채가 51조원이 넘는다. 고스란히 혈세다. 이들은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간 우리는 적폐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논란 탓에 정작 자원개발 부실을 가져온 본질을 왜곡했다. 서둘러 덮으려 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과정이 비교적 분명해졌다. 약속한 대로 당사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정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공기업)을 해야 한다. 어설피게 출구부터 찾다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경제부)

[우리말로 깨달다]

혼자와 신독(慎獨)

인생에서 정말로 괴로운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주저 없이 '혼자'와 '신독(慎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단어는 듣기만 하여도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철저히 외로움을 느껴본 사람은 혼자의 고통을 알 겁니다. 아니 잠깐만 혼자 버려진 느낌을 받아도 괴롭기 짝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한편 고전(古典)을 읽노라면 수없이 등장하는 어휘가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가라는 의미의 신독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도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인(聖人)의 경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흐트러지는 스스로를 쉽게 발견합니다. 당연히 두려운 마음에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신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어서 나쁜 행동을 안하는 게 착한 일이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마음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신독은 아니겠죠. 실제로 나쁜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엄밀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아니죠.

그러기에 옛 성인들은 평상시 사람들 속에서의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겁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오히려 위험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인(仁)인 척, 자(慈)인 척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순간에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신독의 문제는 괴로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독을 어기는 것을 짜릿함이나 해방감으로 포장했을 겁니다. 신독을 어기는 마음을 자유로 여기고, 신독을 벗어난 마음을 용기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독을 어기지 않으면 실제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홀로 있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은 두려움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내 가식(假飾)을 나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삽니다. 가식을 줄이는데 신독으로 다가가는 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독은 어렵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가다듬으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나를 지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두 가지 문제의 답은 통합입니다.

바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요? 나의 아슬아슬함을 지켜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친구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믿는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독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외로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과 통합니다. 하나니까 혼자이겠죠. 그런데 하나가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낱'이 되고 맙니다. 한낱은 하나하나가 낱알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외로움의 원인이 되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께'가 됩니다. '함께'라는 말도 원래는 '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혼자와 신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매운탕

생선을 주재료로 하여 고춧가루 또는 고추장으로 아주 맵게 조리하여 만든 찌개이다. 매운 맛은 고춧가루·후춧가루 등이 주도하고 고추장은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데, 그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배합한다. 만드는 법은 물고기를 토막 쳐서 넣고 내장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머리를 넣고 푹 끓인다. 부재료로는 무·두부·파 등을 넣고 양념으로는 다진 파·마늘·생강·고춧가루를 알맞게 넣고 고추장으로 맛을 조절하여 끓인다. 매운탕을 끓이는 데는 민물고기나 바닷물고기 어느 것을 써도 좋지만 맛으로 따지면 메기·쏘가리·황쏘가리를 제일로 친다.



고 난 뒤에 서비스 차원에서 나오는 매운탕이다. 활어회를 먹는 모미 후에 따라오는 독특한 한국식 생선 회문화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활어회를 먹고 나서 매운탕으로 마무리를 해야 개운함을 느낀다. 횡집의 매운탕은 회를 먹고 나서 당연히 먹어야 하는 통과례쯤으로 여긴다. 주인은 대충 끓이고 손님은 대충 먹는다. 횡집의 매운탕은 이렇게 정식 물고기가 아닌 회를 뜨고 남은 머리와 꼬리, 가시에 붙은 자투리 살을 이용하여 끓이기 때문에 분식집의 라면이나 김밥처럼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재활용 매운탕' 맛이 기막히게 훌륭하다는 데 있다. 외형상 횡집의 매운탕은 '감동 없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물고기 한 마리가 '감동적인' 매운탕에 보란 듯이 맛나게 끓여내는 집도 있다. 말이 매운탕이지 그런 집의 매운탕은 매운탕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다. 해물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알탕이라고 불러도 이의를 달지 못할 정도이다.

민물고기 매운탕은 푹 끓일수록 맛이 있다. 처음 끓일 때는 국물이 담백하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진해지면서 걸쭉하게 되어 제 맛이 난다. 그리고 이것은 고춧가루나 고추장만으로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다. 후춧가루와 생강을 다져 넣어야만 비린내가 가시게 된다.

간도 간장 대신 소금으로 맞추어야 맛이 한결 돋우어진다. 민물고기 매운탕을 즐기는 사람은 한강 상류에 있는 팔당이나 청평 가까이 가거나 때로는 더 멀리 여주나 동두천을 지나 한탄강 근처까지 원정을 가기도 한다.

매운탕은 생선을 고추장, 고춧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끓여낸 음식으로, 맵고 자극적인 맛이 특징인 전형적인 한국요리이다. 주재료인 생선은 민물고기와 바닷고기 모두 사용된다. 생선을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어 미나리, 썬감, 양파, 무, 고추, 마늘, 호박, 두부 등과 함께 끓인다. 매운탕의 간은 고춧가루, 마늘, 간장, 고추장 등으로 맞춘다.

전통적 요리 방법에서는 국물은 맹물이나 쌀뜨물을 이용하고, 건더기는 주로 민물생선인 천어(川魚)를 이용하는데 메기·붕어·쏘가리를 으뜸으로 치며,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하여 조개류·굴류, 계절의 향채(양파·무·미나리·풋고추·붉은 고추·썬감·깻잎·방아 잎·파·마늘)와 두부·호박 등을 넣고 끓인다. 천어 외에도 민어·조기·대구·도미·동태·준치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농어, 민어, 잉어, 송어 등 이 땅의 모든 물고기는 매운탕 재료로 쓰일 수 있다. 심지어 우리의 물고기가 아닌 관상용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먹었다는 일화도 있다. 부재료로 여러 가지 해산물이 들어가는데, 기호에 따라 게, 조개, 굴 등이 들어가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한다.

이렇게 특정 생선을 한 마리 마음먹고 잡아 만드는 '제대로 된 생선매운탕' 이외에도 '매운탕'이란 명칭으로 반드시 나오는 음식이 있다. 바로 생선회 먹

(코리안넷)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ахалинский ансамбль "Пила Кен" станет участником фестиваля "Манящие миры. Этническая Россия"

Народный нивхский ансамбль "Пила Кен (Большое солнце)" из села Некрасовка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уральской программ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чующего фестиваля "Манящие миры. Этническая Росс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с 27 июля по 7 августа. Выступления состоятся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Тюмени, Омске, Ишиме и Томске.

Программа познакомит зрителей с уник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го Севера — ительменов, эвенков, чукчей, эскимосов, саамов, ненцев, нивхов. В проекте представлены жемчужины этнических танцев, горловое пение, музыка фолк, этническая эстрада. Многожан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озволяет представить палитру этн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от аутентичных форм до современных. "Манящие миры. Этническая Россия" —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стране кочующий фестиваль.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его развития — создание твор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от Мурманска до Чукотки и от Таймыра до Горной Шории. Где бы ни встречались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на каких бы площадках ни пересеклись — везде быстро и слаженно создают качественн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граммы. В 2017 году фестиваль с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Ансамбль "Пила Кен"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немног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несет аутентичную культуру нивхов и хранит в своем репертуаре калейдоскоп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За годы существования ансамбля накоплен огромны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и задачей ансамбля является пропаганда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и и быта нивхского народа.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 игровой сценический блок "Мужские игрища", который и был замечен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а после приглашен для участия в "Манящих мирах".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оездки является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ера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нвестмент Компани Лтд." в рамках "Плана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т со ОЦНТ.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водит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73-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Праздник состоится 18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на площад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Историческому парку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по ул. Священномученика Илариона Троицкого.

В программе:

10:00 - Возложение венк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11:00 – 16:00 Открытие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ы,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артис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местных творческих групп.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зные площадки: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ей,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народному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фото зона, фестиваль «Бибимбап», фото-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игры, фестиваль единоборств,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твор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зона выездного питания.

광복절 기념행사

2018년 8월 1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 - 나의 역사>역사파크 근처 행사장에서 광복 73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명절 행사 프로그램:

10시 - <슬라와(영예)광장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남부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영예기념 종합기념관) 성화에 헌화.

11시 - 16시 - 광복 73주년 기념행사 개막, 남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사할린 아티스트들의 공연프로그램.

행사장에서는 민속놀이, 스포츠경기, 민속공예교실, 비빔밥축제, 사진전시, 동양무술축제, 사할린동포 창작, 대중놀이 등이 펼쳐진다.

조직위원회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박해룡님께 드리는 축하문

Дорогой наш папа, поздравляем тебя с 80-летним юбилеем! Отец — как много жизни, чести и достоинства в этом слове. Для каждого мужчины нет большего счастья, чем вырастить хороших детей.



Надеемся, что ты гордишься нами, как мы гордимся своим отцом. Ты — пример силы, выдержки и уверенности, чести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Здоровья Вам, заботы и семейного тепла.

Дети, внуки, правнуки

팔손을 맞이하시는 박해룡 선생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사할린한인협회

박해룡 사할린주한인협회 전 회장님께 드리는 축하문

사할린주 농업의 발전과 사할린동포사회를 위해 많이 노력하신 박해룡 선생님께 팔손을 축하드립니다!

새고려신문을 들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고 귀력에 부유함과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자녀, 손자녀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